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25. 09. 16.
쪽수 4장 / 사진자료 6장

- 배 포 : 2025. 09. 16.
- 제 공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사업담당 : 이채영 학예연구사(031-481-7038)
- 홍보담당 : 유채린 학예연구사(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소장품기획상설전 《비(飛)물질: 표현과 생각 사이의 틈》 전시 연계 퍼포먼스 – 한석경, 〈흰 그림자〉 개최

- ▶ 경기도미술관, 9월 18일(목) 오후 3시 한석경 작가의 퍼포먼스 〈흰 그림자〉 미술관 야외 데크에서 개최
- ▶ 한국전쟁 전 만들어져 남한과 북한으로 오가던 '동해 북부선' 철도의 흔적과 기억을 회고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채집하여 작품 구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소장품 기획상설전 《비(飛)물질: 표현과 생각 사이의 틈》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9월 18일(목) 오후 3시 한석경 작가의 〈흰 그림자〉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한석경 작가의 〈흰 그림자〉(2025)는 북한과 남한을 오가며 물자 수송을 하던 동해북부선을 기억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전쟁 이전의 시간을 기억해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끊어져 버린 동해북부선이 통과하던 터널들 가운데, 강원도 고성에 남아 있는 세 개의 터널 벽면에는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철길 주변에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1920-30년대생 어르신들이 머무르고 있다. 작품은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석경 작가는 한국전쟁이라는 시간을 겪으며 살았던 분들의 삶의 흔적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늦은 고백〉(2019-2021) 역시 실향민인 작가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삶 안에서 그리움의 행위로 남긴 기록들을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와 연계하여 제작된 퍼포먼스 〈흰 그림자〉는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층위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퍼포먼스이다. 미술관의 야외 데크와 수변 공간을 오가며 펼쳐질 조아라 배우의 행위를 통해 관객은 소리와 움직임, 물리적 감각을 통해 고성에 남겨진 공현진 터널이 내재하고 있는 기억과 역사의 깊이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퍼포먼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gmoma.ggcf.kr/edus/2016>)

1. 한석경, 〈흰 그림자〉, 퍼포먼스, 2025



2. 작가 - 한석경



한석경(b.1982)은 특정 지역에 머물며 물리적 시간을 보내고 그곳의 물질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개인, 물건, 장소, 역사를 꿰어 공간 설치를 꾸려나가는 작업을 주로 하는 본인은 《시간채집: 잃고 잊고 있고》(보안여관, 2011)을 시작으로 《유사한 사유》(오픈스페이스 배, 2013)를 작업하였으며, DMZ를 둘러싼 서사에 주목하면서부터는 국가, 분단 등의 거대담론으로 시선을 확장한 이후 《시언: 시대의 언어》(DMZ 문화예술공간 통/화곡동 컨테이너, 2019), 《사사 私私》(아트포럼리, 2020)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낮선 전쟁》(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0), 《흰 밤 검은 낮》(경기도미술관, 2020), 《DMZ Art&Peace Platform》(고성 제진역, 2021) 등 150 여 회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14 년 미얀마 양곤의 New Zero Art space, 2017년 서울 평화문화진지, 캔 파운데이션의

독일 베를린 ZK/U, 2022-2024년 고양시예술창작공간 새들 등의 레지던시를 거쳤고, 2025년 박수근미술관 작가로 현재 입주 상태이다.

3. 배우 - 조아라



조아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부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연극원 전문사에서 연기를, 무용원 전문사에서 무용창작을 전공했다. 몸, 소리, 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형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그룹 '몸소리말조아라'의 대표로서 연극, 다원, 무용, 전통, 시각, 문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혼종 하이브리드 별종이다. 연출, 안무가, 소리꾼, 배우, 무용수, 퍼포머, 작가,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1도씨 추적선 - 어쩔 수가 없어」, 「1도씨 추적선 - 목욕합시다」, 「봄봄 희곡전 - 수궁가가 조아라」 등을 출판했다. 대표작으로는 <판소리 움직임 탐구> 시리즈(전통/현대무용), <조각난 뼈를 가진 여자와 어느 물리치료사>(피지컬 씨어터), <Be-Muse : 맺고 풀고>(다원예술), <우리가 모이면 축제다>(무용), <날, 깨워줘>(다원예술), <목욕합시다>(다원예술), <어쩔 수가 없어>(다원예술), <수궁가가 조아라>(전통) 등이 있다.

4. 음악감독 - 김현수



김현수는 베이스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했고 현재 밴드 루디스텔로의 베이시스트이다. 홀, 타니모션 등 전통악기 구성이 있는 팀들을 거치며 전통음악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연주활동을 넘어 작곡과 사운드 디자인으로 영역을 확장해 지금은 각종 공연, 영상, 미술에 음악 작곡 및 사운드 작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로 현대무용과 연극에 음악 및 사운드 작업을 하며, 최근 몇해 전부터 한석경, 비고 작가 등과 함께 현대미술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정다슬 파운데이션' 작품 <PINK : Published In North Korea>, '허윤경' 작품 <미드필더 : 접촉면에 한하여>, '비고' 작품 <스플린트>, '시나브로 가슴에' 작품 <구조의 구조>, '댄댄스 프로젝트' 작

품 <hello world>, '지금아카이브' 작품 <조금 쓸쓸한 독백과 언제나 다정한 노래들>, '극단 푸른수염' 작품 <유디트의 팔뚝> 등이 있다.

5. 작품 크레딧

연출: 한석경

퍼포머: 조아라

음악: 김현수

음향: 그린플랜

공간: 인트로스테이지

소품: 풀풀잉잉팀